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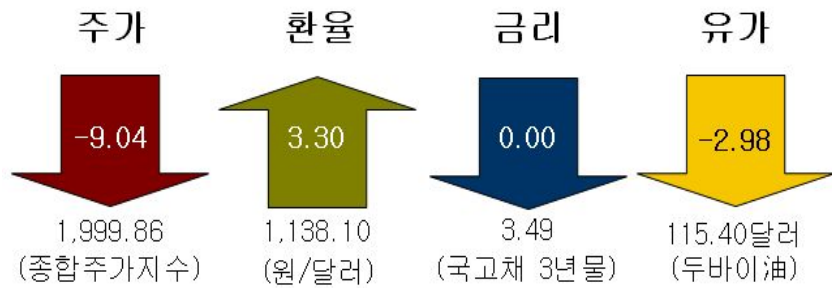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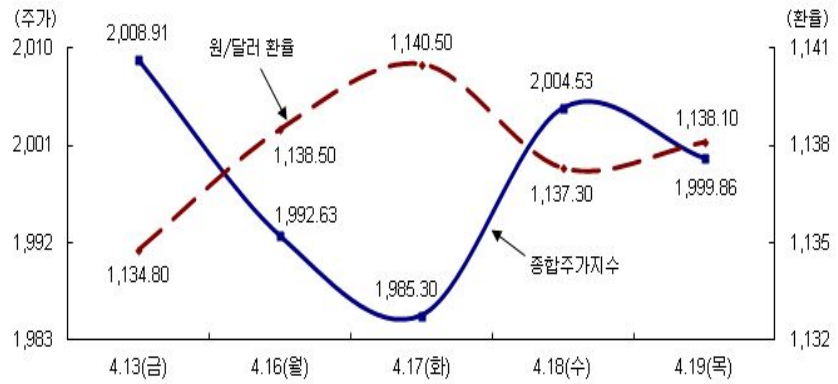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하다!
-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13~4.1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하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이 부 형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 임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하다! -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 한국,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감 대두

최근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되고,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11년 2.8%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지난 2년 간 변동없이 정체되어 있다.** 또, 중국과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2000년 1.1%에서 2011년에 6.5%까지 상승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그동안 격차를 줄여왔던 일본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도 일본경제가 동일본대지진 피해에서 회복될 경우 다시 확대될 우려도 있다.

■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전체 수출과 주요 7개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무역특화지수와 비교우위지수 분석을 통해 한중일 수출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열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전체 수출경쟁력이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일본과는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에는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2009년 0.06을 기록한 후 2011년에는 0.03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부터는 중국의 무역특화지수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도 동일본대지진 영향을 제외하면 2009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의 7개 수출 품목이 넷 크래킹 상태에 있으며, 중국시장을 제외한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는 中日대비 경쟁열위에 있다. 7대 수출 품목의 수출입 합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11년 한국은 0.34로 일본 0.45 보다 낮은 수준이며 중국이 2000년 -0.07에서 2011년 0.16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추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품목들의 경우,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의 수입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 무역특화지수가 낮고, 미국 시장에서는 中日 모두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품목별로도 다수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 자동차, 조선의 무역특화지수가 2009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철강은 수입특화로 전환되었다. 또, 일본에 비해서는 7개 품목 가운데 IT와 정밀기기를 제외한 5개 상품의 무역특화지수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에 대해서는 2011년 기준으로 IT, 자동차, 정밀기기의 3개 품목만이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에 대한 수입특화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對中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對中 수출특화산업 수는 변화가 없으나, 7개 품목 중 3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對中 수출경쟁력이 하락했다. 韓日간 무역특화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7개 품목 가운데 수입특화 품목 수가 6개로 여전히 對日 수입특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수출시장 내에서도 한국의 품목별 수출경쟁력은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중국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 내에서는 모든 품목들의 비교우위지수가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이 많았다. 미국시장에서는 정밀기기를 제외한 6개 품목의 비교우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IT와 같은 품목에서는 일본과의 격차가 심화되거나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시장에서는 중국의 비교우위지수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2011년에는 기계, IT, 자동차, 정밀기기의 4개 품목 비교우위지수가 중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 對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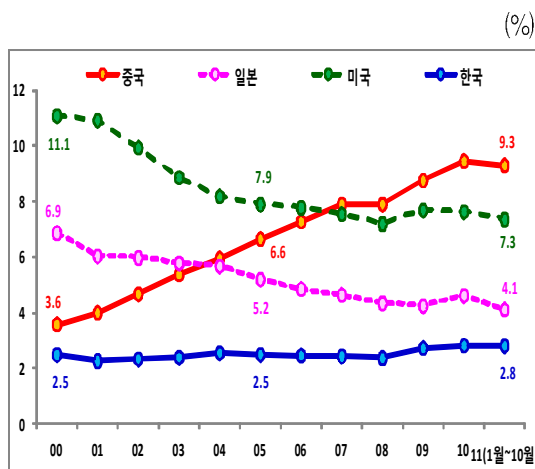
■ 시사점

과거 10년 간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경쟁열위 상품이 증가하는 등 경쟁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對 선진국 시장 수출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韓·美, 韓·EU 등 선진지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시장 대상 수출 마케팅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등 신흥국시장 공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새롭게 등장한 신흥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하되, 각 신흥국별 경제·산업·사회 등 부문별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출상품조합전략이 필요하다. 또 신흥국 대상 적정기술 개발 및 이전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부문의 수출 진흥을 꾀해야 한다. **셋째,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지속을 통한 기술과 상품에 있어서의 프론티어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기업들의 투자 및 현장인력 확보에 관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와 생활 관련 한류 붐 활용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와 생활 관련 한류 붐을 수출 촉진을 위한 매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한국, 세계 수출시장 내 경쟁력 약화 우려 대두

- (정체되고 있는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한국의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정체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11년 2.8%로 0.3%p 상승하였으나,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2년간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8%로 정체
- (중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 심화) 최근에는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세계 수출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세계 수출 시장을 잠식해 가는 가운데 한국과의 對 세계 수출 비중 격차도 확대
 - 중국의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6%에서 2011년 9.3%로 급성장
 - 이에 따라 한국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도 2000년 1.1%p에서 6.5%p로 크게 확대
 - 한편, 최근 일본과의 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서플라이체인이 붕괴되는 등 수출에 큰 차질을 겪었기 때문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 美中日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 >

구분	'00	'02	'04	'06	'08	'11
對美	8.6	7.6	5.6	5.3	4.8	4.5
對中	1.1	2.3	3.4	4.8	5.5	6.5
對日	4.4	3.6	3.1	2.4	2.0	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2011년은 1-10월까지 누적치 기준.

2. 한미중일 수출경쟁력 분석 방법 및 대상

○ (분석 방법) 수출경쟁력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국가별, 국가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와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의 비교를 통해 알아 봄

-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 국가별, 국가간 측정을 통해 절대적 비교우위 정도에 대해 분석

· 국가별 무역특화지수는 $TSI = \frac{(X_{i,j} - M_{i,j})}{(X_{i,j} + M_{i,j})}$ 로 산출됨. 단, $x_{i,j}$ 는 j국가의 i산업 수출액이고, $M_{i,j}$ 는 j국가의 i산업 수입액임

· 국가간 무역특화지수는 $TSI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로 산출되는데, 이는 특정국가의 상대국에 있어서의 무역특화 정도를 나타냄. 단, 여기서 $x_{i,jk}$ 는 k국에 대한 j국의 i재화 수출액, $M_{i,jk}$ 는 k국에 대한 j국의 i재화 수입액을 의미함

· 무역특화지수의 부호가 양(+)이면 그 산업은 수출특화를, 음(-)이면 수입 특화를 의미하는데 그 절대 값이 클수록 수출특화 또는 수입특화 정도가 큼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¹⁾) : 특정 산업별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지역 내에서의 비교우위를 판단

· CA지수는 $\frac{(RX_i/RX)}{(RE_i/RE)}$ 로 산출됨. 단, 여기서 RX_i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i상품의 수출액, RX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총수출액, RE_i 는 상대지역의 i상품 수입액, RE 는 상대지역의 총수입액임

· CA지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

○ (분석 대상) HS코드 기준으로 72~90번까지의 7개 분야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측정하는데, 이들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의 67.6%, 수입의 34.9%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군임

< 분석 대상 7개 산업의 산업코드 및 품목명 >

산업	HS 코드	품목명	산업	HS 코드	품목명
철강	72	철강	자동차	87	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철강제품	73	철강의 제품	조선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기계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정밀기기	90	광학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 측정기, 검사기, 정밀기와 의 료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IT	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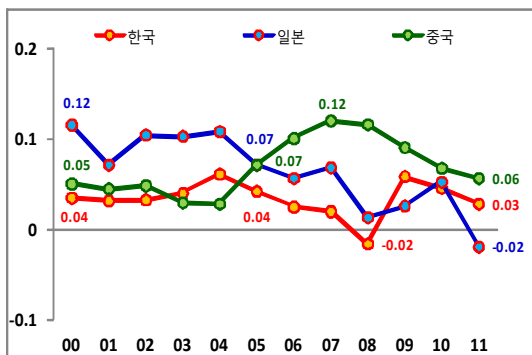
1) CA지수는 발라사의 RCA지수를 변형시킨 것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비교우위지수로 활용됨. 특정지역의 수입구조를 분모로 하는 CA지수는 동지역에서 여러국가의 비교우위를 비교하는 경우 동일한 분모가 의미하는 동일한 시장조건 하에서 분석하는 것임. 따라서 특정지역에서의 국가간 비교우위의 비교 지표로는 타당성을 가짐. 단, 특정국의 비교우위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지역마다 수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한계에 있음. 심영섭, 윤재형,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의 권역별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 1995년 p17-18.

3.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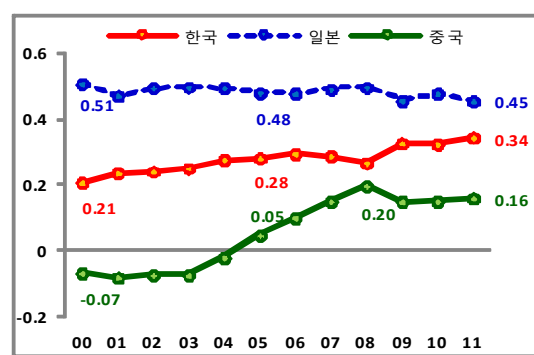
① 전체 수출경쟁력 비교

- (전체 수출경쟁력 하락세) 한국의 전체 수출경쟁력이 최근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중국에는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일본과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은 전체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가운데 중국에는 비교열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과는 경쟁 심화
 - 한국의 전체 무역특화지수²⁾는 2009년 0.06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1년에는 0.03으로 다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0년보다 낮은 수준임
 - 지난 2005년부터 중국의 무역특화지수가 한국을 추월, 최근까지도 무역특화지수가 한국보다 높아 비교우위상태가 지속
 - 일본의 경우, 2009년 무역특화지수가 한국에 낮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회복하여 한국보다는 높은 상황으로 동일본대지진이 발생 한 2011년을 제외하면 최근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수출품목 여전히 경쟁 치열) 7개 품목 종합 수출경쟁력은 상승하고 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세인 반면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의 7개품목 종합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21에서 2011년 0.34로 상승하였으나, 일본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실정
 - 반면, 중국의 동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07로 수입특화였으나, 2005년 0.05로 수출특화로 전환된 후 2011년에는 0.16을 기록하여 한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임
 - 한편, 한국의 7개 품목 종합 수출경쟁력의 개선은 IT와 정밀기기 부문의 무역특화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임

< 한중일 무역특화지수 추이 >



< 국별 7개 품목 종합 무역특화지수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2)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② 주요 시장별 7개 품목 종합 수출경쟁력 비교

○ (중국시장을 제외한 일본,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열위) 중국시장을 제외하면 일본에서는 중국에, 미국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경쟁열위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중국시장의 경우 한국의 7개품목 종합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 비해 개선되면서 수출특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경쟁우위도 유지
- 하지만, 일본시장에서는 중국에, 미국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열위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의 수입특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서도 무역특화지수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對中 경쟁열위 상태
 -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의 수출특화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경쟁열위 상태가 지속

< 각 시장에서의 국가별 7개 품목 종합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분	중국시장			일본시장			미국시장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
2000	0.17	0.11	-0.68	-0.39	-0.40	-0.59	0.21	0.30	0.55
2005	0.31	0.06	-0.74	-0.42	-0.32	-0.68	0.28	0.58	0.61
2011	0.22	0.11	-0.70	-0.40	-0.34	-0.66	0.36	0.58	0.58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7개 품목 종합 무역특화지수는 HS(2단위) 72-90까지의 7개 품목 수출액 총합과 수입액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

③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

○ (다수 품목 수출경쟁력 약화 속 중국의 빠른 추격) 한국의 경우 7개 품목 가운데 다수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비해 수출경쟁력 비교열위 품목이 증가

- 한국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 자동차, 조선의 무역특화지수가 2000년에 비해 하락하면서 수출경쟁력도 다소 약화
 - 철강의 경우 2000년 무역특화지수가 0.00이었으나, 2011년에 -0.02로 하락하면서 수입특화로 전환됨
 - 한편, 한국의 7개 품목 종합 수출경쟁력의 개선은 IT와 정밀기기 부문의 무역특화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임

- 이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경쟁열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비해서는 수출경쟁력 열위 품목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에 비해서는 7개 품목 가운데 IT와 정밀기기 산업의 경우만 수출경쟁력이 비교우위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비교열위 상품 수가 5개로 다수를 차지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2000년 대비 2011년에 철강, 기계, 조선의 3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기준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IT, 자동차, 정밀기기의 3개 산업에 불과함

< 국가별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00	'05	'11	'00	'05	'11	'00	'05	'11
철강	0.00	-0.12	-0.02	0.58	0.56	0.58	-0.45	-0.27	0.17
철강제품	0.33	0.27	0.23	0.42	0.38	0.35	0.53	0.54	0.67
기계	0.18	0.16	0.09	0.42	0.39	0.46	-0.12	0.22	0.28
IT	0.13	0.25	0.26	0.41	0.33	0.17	-0.05	-0.01	0.12
자동차	0.81	0.80	0.76	0.79	0.80	0.79	0.11	0.15	-0.14
조선	0.95	0.88	0.91	0.96	0.98	0.97	0.66	0.81	0.92
정밀기기	-0.56	-0.04	0.36	0.42	0.29	0.30	-0.07	-0.33	-0.24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산업분류 기준은 2페이지 표 참조.

④ 한국의 경쟁국 대비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

- (對中 수출경쟁력 하락) 한중 간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특화산업 수는 변화가 없으나, 7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對中 수출경쟁력이 하락
 - 2011년 한국의 對中 수출특화 품목 수는 분석 대상 7개 품목 중 4개로 2000년과 동일
 - 단, 다수 품목의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한국의 對中 수출경쟁력 약화
 - 2000년 대비 2011년에 대중 무역특화지수가 악화된 산업은 철강, 철강제품, 기계, 조선의 4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철강, 철강제품, 조선의 3개 품목이 對中 수입특화되어 있음
- (對日 수입특화 상태 지속) 韓日 간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수입특화 품목 수가 7개 중 6개로 여전히 對日 수입특화 상태 지속

< 韓中 · 韓日 간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

구 분	韓中 간			韓日 간		
	'00	'05	'11	'00	'05	'11
철강	0.23	-0.03	-0.33	-0.39	-0.49	-0.43
철강제품	-0.10	-0.31	-0.60	0.03	0.11	0.00
기계	0.32	0.35	0.24	-0.31	-0.50	-0.60
IT	0.12	0.27	0.14	-0.37	-0.36	-0.12
자동차	0.48	0.85	0.62	-0.61	-0.50	-0.47
조선	-0.25	-0.68	-0.80	-0.93	-0.98	-0.56
정밀기기	-0.40	0.72	0.71	-0.84	-0.43	-0.65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산업분류 기준은 2페이지 표 참조.

⑤ 주요 수출시장 내 품목별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 CA지수³⁾ 비교

○ (중국시장 내 경쟁력 개선 속 對日 비교열위 지속) 한국은 분석대상 7대 품목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이 다수

- 7대 품목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5개 품목의 비교우위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7개 품목 모두 2000년 대비 2011년 CA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계와 조선을 제외한 5개 품목의 CA지수가 1을 상회하면서 비교우위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IT와 조선 및 정밀기기를 제외한 4개 품목의 CA지수는 여전히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

· 더욱이 철강과 기계 부문은 일본과의 CA지수 차이가 확대되는 등 對日 비교열위가 심화

< 한국과 일본의 對中 시장 CA지수 추이 >

구분	한국			일본		
	'00	'05	'11	'00	'05	'11
철강	1.53	1.55	1.93	1.66	1.85	3.55
철강제품	0.90	0.87	1.19	1.90	2.00	2.20
기계	0.72	1.08	1.00	1.28	1.45	2.05
IT	0.82	1.03	1.23	1.14	0.92	0.99
자동차	0.56	2.80	1.25	2.38	2.65	2.47
조선	0.22	0.78	0.71	0.10	1.14	0.04
정밀기기	0.22	1.14	2.92	1.74	0.95	1.22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산업분류 기준은 2페이지 표 참조.

3) CA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0.1보다 크고 1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중간 정도 0.1 이하일 때에는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구분함. 심영섭·윤재형(1995),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의 권역별 경쟁력 분석.

○ (미국시장 내 對中 경쟁 심화) 한국은 분석대상 7대 품목 중 대부분의 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이 中·日에 비해 뛰어나나,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

- 미국 시장 내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주요 수출 상품
 - 2011년 기준 분석 대상 주요 7개 품목 가운데 일본에는 철강, 철강제품, IT, 조선의 4개 품목 CA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는 기계, 정밀기기를 제외한 5개 품목의 CA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단, 일부 품목에서는 中·日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거나,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11년 기준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는 일본에, 기계와 정밀기기는 중국에 비해 CA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 가운데 기계는 2010년 대비 2011년 CA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비교 열위에 있음
 - 또, IT도 CA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음

< 한·중·일의 對美 시장 CA 지수 추이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00	'05	'11	'00	'05	'11	'00	'05	'11
철강	1.70	1.82	2.18	0.50	0.48	0.98	0.59	0.50	0.36
철강제품	1.84	1.80	2.79	0.91	0.93	1.26	2.49	2.37	1.70
기계	1.65	1.11	1.36	1.45	1.62	1.83	0.88	1.67	1.94
IT	2.03	2.22	1.99	1.43	1.27	1.01	1.20	1.80	1.66
자동차	1.10	2.15	2.65	2.24	3.09	3.57	0.17	0.24	0.29
조선	9.20	7.53	24.33	1.21	1.04	1.65	0.67	0.32	2.30
정밀기기	0.42	0.68	0.65	2.53	1.98	1.94	1.04	0.79	0.75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산업분류 기준은 2페이지 표 참조.

○ (일본시장 내 對中 경쟁력 약화) 한국은 분석대상 7대 품목 중 대부분이 일본시장 내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지만, 다수 품목의 CA지수가 중국에 못 미치는 등 일본시장 내 對中 경쟁력 약화

- 한국의 경우, 7개 품목 대부분의 일본시장 내 CA지수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개선

· 기계를 제외한 6개 품목의 일본시장 내 CA지수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와 정밀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CA지수가 1을 상회하여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일본시장 내 중국 상품 대비 경쟁열위 상품 수가 증가

· 2000년 기준 일본시장 내 중국 대비 경쟁열위 상품은 분석 대상 7개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정밀기기의 2개 품목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기계와 IT의 CA지수가 중국 수준을 하회하면서 4개 품목이 對中 경쟁열위로 전환

< 한국과 중국의 對日 시장 CA 지수 추이 >

구분	한국			중국		
	'00	'05	'11	'00	'05	'11
철강	6.26	6.85	7.69	1.42	1.23	1.62
철강제품	3.36	3.84	3.68	2.48	2.36	2.70
기계	1.53	1.16	1.13	0.53	1.64	2.17
IT	1.70	1.87	1.75	1.15	1.42	1.90
자동차	0.29	0.59	0.77	0.46	0.81	1.09
조선	0.28	0.73	8.38	2.04	5.34	3.18
정밀기기	0.34	2.13	0.83	0.98	1.21	1.17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산업분류 기준은 2페이지 표 참조.

4. 시사점

○ 과거 10년 간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경쟁열위 상품이 증가하는 등 경쟁국 대비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 對 선진국 시장 수출 경쟁력 제고

- 韓·美, 韓·EU 등 선진지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여, 對 선진국 시장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대상 현지 상품 판촉 투어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

- 중국 등 신흥국시장 공략 가속

- 새롭게 등장한 신흥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되, 각 신흥국별 경제, 산업, 사회 등 부문별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출상품조합전략을 마련
- 한편, 신흥국 대상 적정기술 개발 및 이전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부문의 수출 진흥을 꾀해야 함

-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기술 및 상품의 프론티어시장 개척

-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상품의 프론티어시장을 창출

- 문화 및 생활 관련 한류 붐 활용 촉진

-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 및 생활 관련 한류 붐을 수출촉진을 위한 매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수출기업들의 투자 및 현장인력 확보에 관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2072-6220, chungm@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4월 13일	4월 19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99	1.97	-0.02%p
	엔/달러	81.19	80.66	77.66	80.91	81.32	0.41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182	1.3120	-0.0062\$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850	12,964	114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638	9,588	-5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9	3.49	0.00%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4.8	1,138.1	3.3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08.9	1,999.9	-9.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4월 13일	4월 19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2.85	102.29	-0.56\$
	Dubai	88.80	106.75	104.89	118.38	115.40	-2.98\$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2.85	299.30	-3.5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